

2018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No. 1804-01

품 목 : 표고버섯(Oak mushrooms)

국 가 : 필리핀(Philippines)

Contents

I. 국가 정보 및 시장통계	3
1. 수출환경 및 경제지표	5
2. 식품 산업현황	9
3. 수출입통계 및 생산통계	13
II. 시장 트렌드	19
1. 소비자 트렌드	21
2. 버섯 생산 및 소비 장려 정책 트렌드	23
3. 버섯 소비 및 제품 트렌드	25
4. 신선 식품 유통 트렌드	27
III. 통관 및 제도	28
1. 통관 및 검역	31
2. 인증정보	37
3. 라벨링	39
4. 위생요건	43



I. 국가 정보 및 시장통계

1. 수출환경 및 경제지표
2. 식품 산업현황
3. 수출입통계 및 생산통계

필리핀 국가 개요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군도 국가. 1946년 7월 4일 스페인, 미국, 일본으로 이어졌던 식민 통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이후에도 21년간의 독재(1972-86년)와 약한 민주 정부가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고통받아 왔음.

필리핀은 높은 교육 수준, 풍부한 영어 사용 노동력, 해외 송금액의 높은 경제 기여 등 경제성장 잠재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빈부격차 또한 심각한 수준. 최근 몇 년 동안 거시경제 성과는 개선되었는데, 이는 세계적인 차입비용 감소 추세에 힘입어 국가 채무변제액이 감소되었기 때문. 그러나 과세표준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필리핀 사회의 근본적인 과두 정치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음.

부패는 남부 지역의 이슬람교 무슬림의 폭력적인 분리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재해 취약국으로서 화산,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

주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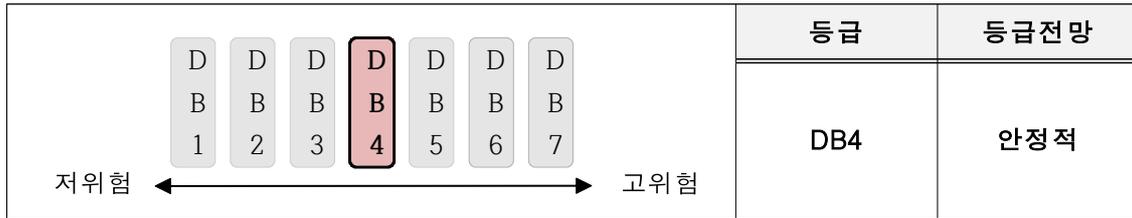
- ▶ 국명: 필리핀 공화국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 수도: 마닐라
- ▶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Rodrigo DUTERTE)
(2016.6.30.~(6년 임기))
- ▶ 인구:
 - 1억492만명(2017)
 - 24세 미만: 19.17%(2017)
 - 도시 인구: 44.4%(2017)
- ▶ 면적: 300,000km²(한반도의 1.3배)
 - 7,107개의 섬으로 구성
 - 국토의 약 65%가 산악지대
 - 루손, 비자야, 민다나오 3개 지역으로 구분
- ▶ 공식어: 영어, 필리핀어
- ▶ 주요 도시: 마닐라, 바기오, 다바오, 세부, 일로일로 등
- ▶ GDP: 3,191억 US달러(2017)
- ▶ 1인당 GDP: 3,075 US달러(2017)
- ▶ 경제성장률: 6.7%(2017)
- ▶ 화폐 단위: 페소(PESO, PHP)
- ▶ 인터넷 보급률: 63%(2018.1.)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Philippines April 2018」, Dun & Bradstreet, 2018.4.13., 「Philippines: Retail Foods - 2017 Food Retail Sectoral Report」, USDA, 2017.12.6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esa.un.org/undp/wpp/publications)

1. 수출환경 및 경제지표

□ 국가 위험등급 및 전망¹⁾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Philippines April 2018」, Dun & Bradstreet, 2018.4.13

□ 주요 전망

구 분	세 부 내 용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인구수 약 1억명의 광대한 내수시장을 보유 - 대규모 인프라 지출로 인해 운송 효율성 및 수송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 부문은 중단기적으로 긍정적 전망세
부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에 따라 실무교육 비용 고려의 필요성이 대두 - 과두 정치 및 대기업의 영향력이 신규 사업의 시장진입을 막아 경쟁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 - 수출의 장애물로는 높은 현지 운송 비용 및 잦은 지연, 수입 절차상의 높은 관세 부담으로 분석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Philippines April 2018」, Dun & Bradstreet, 2018.4.13

1) D&B의 'DB' 위험 지표는 한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국가 간 평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의 요인들이 2년의 기간에 걸쳐 수출 결제 및 투자 수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미치는 위험을 나타냄. 'DB' 위험 지표는 국가별 위험 카테고리로서 다음의 4가지 종합 지수로 구성됨. ▲ 정치위험, ▲ 상업위험, ▲ 거시경제위험, ▲ 외부위험. 첫째, 정치위험은 국내외 안보 상황, 정책 역량 및 일관성, 국가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타 요인을 포함. 둘째, 상업위험은 계약의 신성함, 사법능력, 규제투명성, 체제의 부패정도, 비즈니스 환경이 상업 거래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타 요인을 포함. 셋째, 거시경제위험은 물가 상승률, 재정적자, 통화공급증가, 국가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즈니스 기회에 상응하는 확장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거시경제 요인을 포함함. 넷째, 외부위험은 경상 수지, 자본 흐름, 외환 보유고, 대외채무 규모, 무역 및 대외투자부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외화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포함.

자료: D&B Country Risk Indicator, Dun & Bradstreet

□ 주요 거시경제 지표

- 2017년 경제성장률은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등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외국인 투자 유치,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해 6.7%를 기록하였으며, 2018 이후에도 6.6% 이상 될 것으로 전망
 - 폐소화 약세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해외근로자 송금 둔화, 필리핀 인프라 사업 진행 속도 저하, 무역적자 지속 등은 필리핀 경제성장의 잠재적 위험요소임
- 2016년 물가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 지속, 풍년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1.3%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2017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 세금 인상 및 폐소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2.9%로 상승
 - 2018년에 들어서며 4%대에 달하는 물가상승률, 지속적인 폐소 약세에 대한 대책으로서 2018년 5월 필리핀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
 - 금리 인상 발표 직후 달러화 대비 폐소화 가치는 하락세로 돌아섬
 - 필리핀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에 따른 저축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치분 소득이 줄어들며 물가상승률은 안정될 것이며, 2019년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로 회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7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의 0.8%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리핀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필리핀의 경상수지 악화와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에 의해 폐소 약세 흐름이 이어졌으나, 필리핀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강한 폐소보다는 경쟁력 있는 폐소를 추구하고 있음

표 1.1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f	2019f	2020f	2021f	2022f
경상수지	2.4	-0.4	-0.8	-0.3	-0.1	0.1	0.4	0.6
부채상환비율	74.0	73.4	73.2	72.7	72.6	72.8	73.4	74.4
재정수지/GDP	-0.9	-2.4	-3.0	-3.5	-3.0	-2.9	-3.0	-3.0
물가상승률	0.7	1.3	2.9	3.7	3.3	3.0	3.0	3.0
경제성장률	6.1	6.9	6.7	6.6	6.6	6.8	6.1	5.5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Philippines April 2018」, Dun & Bradstreet, 2018.4.13

□ 무역통상 환경

- 필리핀의 무역 환경은 중국이 무역상대국 1위를 차지
 - 2018년 1월 기준, 중국은 필리핀의 수출대상국 4위이자 수입대상국 1위를 차지
- 두테르테 대통령이 ‘탈미친중’ 외교노선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구조를 크게 바꾸지는 못하였는데, 중국의 필리핀 투자가 확대되면서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 2018년 4월 기준, 중국 기업들로부터의 최근 투자액은 98억 달러에 달함
 - 상품 수입은 폐소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 1월 연 11.7% 상승함(상품 수입은 2015년 3월 이후, 무역가중치 기준으로 17.6% 하락)
 - 반면, 전통적으로 통화가 약해지면 수입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몇 달 내로 수입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²⁾

□ 위험 및 기획요소

구 분	세 부 내 용
단기 경제전망	<p>물가상승률 목표 범위 초과</p> <p>▶ 2018년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2-4% 목표 범위를 초과하여 전년 대비 4.3%로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정부가 1월에 시행한 TRAIN(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Act, TRAIN)법의 직접적인 결과로, 3월 식품 및 무알콜(5.5%), 담배 및 주류(20.0%)³⁾의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 • TRAIN법은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원 1,600억 달러를 마련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조세개혁법으로서,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일부 카테고리를 보유한 근원 소비자물가도 2014년 8월 4.9%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전체 및 근원 소비자물가의 공동 상승은 물가상승이 경제에 전반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p>필리핀 중앙은행, 기준금리 3.25%로 인상</p> <p>▶ 필리핀 중앙은행은 5월 정례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에서 3.25%로 25bp 인상한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중앙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5년 동안의 경제성장률(평균 6% 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가상승률 급등(4% 대를 상회)과 지속적인 폐소 약세에 대응한 조치로 분석 • 필리핀 정부는 그동안 금리를 동결해 왔었는데, 필리핀 내 소비자의 재화 및 서비스 수입 여력 약화로 인한 對 필리핀 수출업체들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상황

2) 「Country Insight Snapshot Philippines April 2018」, Dun & Bradstreet, 2018.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금리 인상 결정 직후 페소화는 달러화에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소비자들의 저축 수요가 늘어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물가상승률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 필리핀 중앙은행 측은 2019년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⁴⁾ <p>▶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은 중국과 미국 간 잠재적인 무역 분쟁으로 인해 추가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p>
<p>장기 경제전망</p>	<p>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로드쇼 착수</p> <p>▶ 필리핀 정부는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시키고자 금년 3분기 중 해상 가스전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필리핀의 탄화수소 산업은 2030년까지 고갈이 예상되는 단일 가스 매장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가스 일부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가스 매장지에 속하는 서부 해안에 존재하나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 • 2015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가 필리핀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두테르테 대통령은 영유권 분쟁 지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 등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조용한 외교를 택해온 상황 • 한편, 해상 가스전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투자자들은 필리핀의 전통적인 관료 주의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파악
<p>정치불안 위험</p>	<p>여전한 공공부문의 부패</p> <p>▶ 필리핀 내 불법 중국 노동자들의 석방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부패 사건에 연루된 법무장관이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테르테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오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두테르테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최초로 발생한 부패 사건인데, 필리핀에서 부패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필리핀은 공공부문의 부패가 감지되면서 180개국 중 111위를 차지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Philippines April 2018」, Dun & Bradstreet, 2018.4.13

3)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PSA)

4) Chrise Dela Paz, 'Bangko Sentral ng Pilipina hikes interest rates for first time since 2014', RAPPLER, 2018.3.10 6:16 PM (<https://www.rappler.com>)

2. 식품산업 현황

□ 필리핀 식품 소매 시장 현황

- 필리핀 식품 소매 매출액은 2017년 474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6년 453억 달러에서 4.6% 증가한 수치
- 필리핀의 식품 소매 시장은 ① 도시 인구 증가 추세(2017년 기준 약 4,650만 명), ② 상류 및 중산층의 성장(1,800만-2,000만 명), ③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편의점의 증가, ④ 필리핀 소비자의 서구 브랜드에 대한 강한 관심, ⑤ 품질 및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
- 필리핀 식품 소매 시장의 규모가 확장되고 소비자구매력 및 구매 기준이 향상됨에 따라 필리핀 소비자의 수입 식품에 대한 수요를 비롯한 수입 품목과 수입량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난 5년 동안 식품 소매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대표적인 식품 유통업체는 SM, Robinsons, Puregold로 확인⁵⁾

표 1.2 필리핀 총인구 및 도시인구 추이(2015-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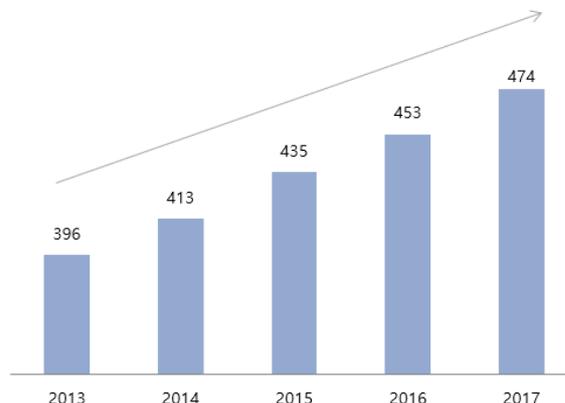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총인구(명)	도시인구(명)	도시인구/총인구(%)
2015	101,716,359	45,172,676	44.41
2016	103,320,222	45,842,660	44.37
2017	104,918,090	46,543,718	44.36

자료: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esa.un.org/undp/wpp)

표 1.3 필리핀 식품 소매 매출액 추이(2013-2017년)

(단위: 억 US달러)



자료: 「Philippines: Retail Foods - 2017 Food Retail Sectoral Report」, USDA, 2017.12.6

5) 「Philippines: Retail Foods - 2017 Food Retail Sectoral Report」, USDA, 2017.12.6

□ 필리핀 식품 소매 유통 현황

- 필리핀 식품 소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유통시장도 성장 추세
- 필리핀의 소매 유통채널은 현대적 유통채널과 전통적 유통채널로 구분
-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편의점과 같은 현대적 유통채널은 지난 20년 동안 급속히 증가하여 모든 도시에 분포되었고, 매출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
 - 주로 수도 마닐라 일대인 수도권과 세부, 다바오 등지의 대도시 중심으로 분포하여, 점차 중소 도시 지역으로 매장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로, 대상 소비자는 중간 소득층 이상
- 한편, 전통적인 유통채널인 '사리사리'⁶⁾ 매장(구멍가게)은 전체 식품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고, 재래시장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신선 농산물을 주로 판매
- 많은 필리핀 소비자들은 신선한 야채와 고기를 재래시장에서 쇼핑하는 반면, 편의성, 청결, 식품 안전 요인으로 인해 점차 슈퍼마켓의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⁷⁾
- 곡류를 제외한 수입식품은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 등 대형매장이 주로 직접 수입을 통해 수입 식품 코너를 따로 설치하여 판매하는 등 수입식품 판매에 적극적인 경향을 띄고 있어 이들 유통채널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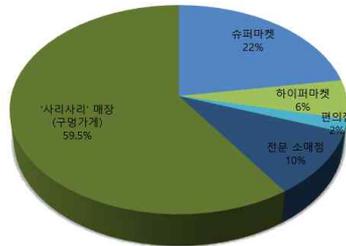
표 1.4 필리핀 식품 유통채널별 매출 규모 추이(2012-2016년)

(단위: 백만 USD, %)

	2012	2013	2014	2015	2016	성장률(%) (15vs16)	점유율(%) (2016)
슈퍼마켓	7.5	8.1	8.6	9.5	10.2	7%	22.5
하이퍼마켓	1.7	2.0	2.3	2.5	2.6	5%	6
편의점	0.4	0.6	0.7	0.8	0.9	8%	2
전문 소매점 (식품, 주류, 담배 등)	3.6	3.9	4.2	4.4	4.6	2%	10
'사리사리' 매장 (구멍가게)	24.4	25.1	25.6	26.2	26.9	3%	59.5
합계	37.7	39.7	41.4	43.6	45.3	7%	100

자료: 「Philippines: Retail Foods - 2017 Food Retail Sectoral Report」, USDA, 2017.12.6

표 1.5 필리핀 식품 소매 유통채널 시장점유율(2016년)



자료: 「Philippines: Retail Foods - 2017 Food Retail Sectoral Report」, USDA, 2017.12.6

6) '사리사리'는 다양성을 의미하며 다양한 식료품을 판매함

7) 「Philippines: Retail Foods - 2017 Food Retail Sectoral Report」, USDA, 2017.12.6

표 1.6 필리핀의 식품 유통채널 유형 및 특징

구분	종류	특징
현대적 유통채널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할인매장, 미니마트, 편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초 소매유통자유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law)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지역 슈퍼마켓 체인은 현대화, 확장, 통합,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변화를 겪었고, 직접 수입을 통한 수입 브랜드 라인이 확대됨 • 이 법안은 외국 유통업체들이 필리핀에서 독립적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품종의 식품의 직접 수입 및 판매를 가능하게 하였고, 대규모 현대식 매장의 성장을 촉진하여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가 부과하는 20-40%의 가격 인상을 없앴 - 2016년 기준, 슈퍼마켓은 연 성장률 8%를 기록한 편의점에 이어 7%를 기록하며 두 번째로 큰 매출 성장을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마켓은 일반적으로 주거 지역이나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쇼핑하고 오락을 위해 방문하는 쇼핑물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장 자주 방문하는 현대적 유통채널임 • 2016년 기준, 슈퍼마켓 매출은 소매정찰가격 기준 102억 1천만 달러를 달성 - 하이퍼마켓은 2016년 3% 성장으로 판매 실적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개장하는 영업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 • 그러나 하이퍼마켓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어 식품에서 일반 상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원스톱 상점으로 소비자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 보유 - 편의점은 2016년 매장 수 약 17%, 판매량은 8% 증가로 현대식 식품 소매업체의 성장을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은 7-Eleven, Mercury Drug, Ministop 및 Alfamart와 같은 기존 플레이어의 확장과 함께 Lawson 및 패밀리 마트와 같은 다양한 해외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
전통적 유통채널	사리사리 매장(구멍가게), 재래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리사리’ 매장(구멍가게)의 점유율 60%로 소매 시장 장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기준 사리사리 매장의 매출액은 269억 4,000만 달러 이상으로 전체 식품 소매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 • 일부 지방에서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없어서 포장 식품, 홈케어, 뷰티 및 개인용품을 취급하는 구멍가게의 중요성이 강조 • 지리적인 편의성, 친밀한 고객 서비스, 단골 고객에서 외상을 허용하는 지불 유연성이 장점 • 구멍가게는 중저 소득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 • 최저임금 구매자들의 비율이 높아 계절성 또는 일일 수입으로 살아가는 고객들이 소량 구매 또는 외상 구매를 할 때 가장 편리 - 전통적인 식품 소매인 재래시장(wet mar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시장은 모든 도시 또는 지방 소도시에 분포 • 재래시장에서 제공되는 품목은 곡물, 육류, 생선, 닭고기와 같은 신선한 농산물과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점에서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청과물임

자료: 「Philippines: Retail Foods - 2017 Food Retail Sectoral Report」, USDA, 2017.12.6

■ 필리핀 상대 수출업자 비즈니스 팁

- 필리핀 사업가들은 신뢰와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므로, 수출업자들은 필리핀 수입업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권장
 - 정기적인 방문은 필리핀 수입업자가 선호하는 바이며 지지의 표시로 간주됨
- 일부 소매 슈퍼마켓에서만 직접 수입이 가능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및 농산물은 필리핀의 식품, 건강 및 식물 검역법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식품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에 등록되어야 함
 - 수입제품은 필리핀 법인(수입업자)만이 등록 가능
- 유통 허브가 없어서, 3대 도시(마닐라, 세부, 다바오)에 유통할 수 있는 수입업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 대부분 수입업자가 유통을 진행하는데, 일부 수입업자는 유통업체를 지명하기도 함
- 일반적인 가격 구조(양륙비(CIF + 관세 + 세금) 포함)
 - 식품 도매상 대상 - 30% 추가
 - 소매 슈퍼마켓 대상 - 20-40% 추가
 - 슈퍼마켓 - 최종 소비자 판매가로 5-15% 추가
- 신용 조건
 - 소매업의 경우 제품은 대부분 위탁품으로 판매되며, 수입자는 30일 후에 대금을 회수하는데, 구매품의 경우 소매업자는 수입업자에게 60-90일 신용 조건을 요구
 - 식품 서비스 산업, 호텔 및 레스토랑은 30-60일을 요구
 - 식품 제조업은 30일을 요구
- 필리핀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소포장을 선호
- 필리핀에서는 저온 유통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품이 극한의 열과 습기에 견딜 수 있도록 포장해야 함
- 섬 간 운송 비용이 높기 때문에 마닐라 외 지역에서는 수입 제품이 더욱 비쌈

3. 수출입통계 및 생산통계

수출입통계 및 생산통계 개요

❖ 표고버섯 관련 주요 수치

- 글로벌 버섯 및 송로(신선/냉장) 수입 규모 약 7억8,000만 달러(2017년)
- 필리핀 버섯 및 송로(신선/냉장) 수입 규모 약 13만1,000 달러, 세계 68위(2017)
- 필리핀 버섯 및 송로(신선/냉장) 수입 시장점유율 1위 한국(91.6%), 2위 영국, 3위 싱가포르 순(2017)
- 한국산 표고버섯(신선/냉장) 수출량 약 26톤, 27만 달러(2017)
- 필리핀 버섯 시장규모 875.7톤(2016), 자급률 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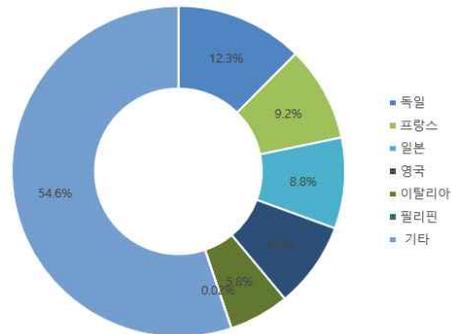
❖ 표고버섯 국가별 HS CODE 분류

국가	HS CODE	품명
한국	0709.59.2000	표고버섯
필리핀	0709.59.90	기타(아가리쿠스 속이 아닌 식용 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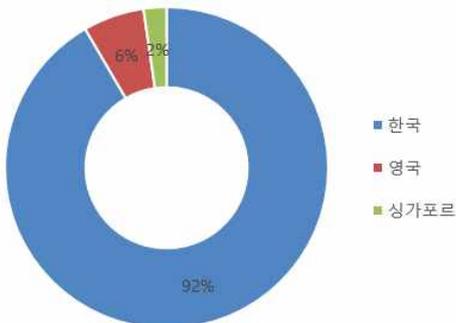
❖ 글로벌 버섯 및 송로(신선/냉장) 수입 규모(2017)

수입국		2017 금액(US 달러)
글로벌		780,413,000
1	독일	95,902,000
2	프랑스	72,110,000
3	이탈리아	68,664,000
4	일본	64,669,000
5	미국	45,088,000
68	필리핀	1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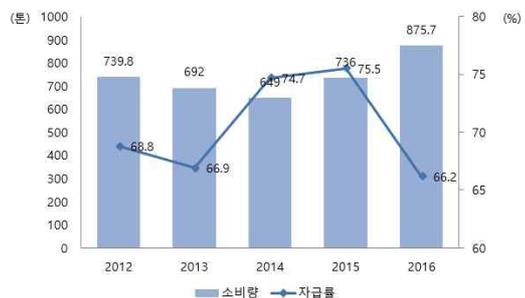
❖ 글로벌 버섯 및 송로(신선/냉장) 수입 비중(2017)



❖ 국가별 버섯 및 송로(신선/냉장) 시장점유율(2017)



❖ 필리핀 버섯(신선/냉장) 시장 규모 추이(2012-2016)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 표고버섯(신선/냉장) 통계 기준 설정

- 버섯의 글로벌 및 필리핀 수입 통계 및 표고버섯의 한국산 수출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HS CODE를 통계 기준으로 설정하고⁸⁾, 필리핀의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품목 키워드를 조사 기준으로 설정

□ 표고버섯의 HS CODE⁹⁾는 한국 0709.59.2000, 필리핀 0709.59.90으로 설정

- 글로벌 수입 규모 파악을 위해 HS CODE 0709.59, 필리핀 수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HS CODE 0709.59.90, 한국산 표고버섯 수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HS CODE 0709.59.2000을 통계 기준으로 설정
- 필리핀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UN 통계(data.un.org) 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목 Mushrooms(버섯(신선/냉장))를 조사 기준으로 설정

표 1.7 표고버섯 항목별 통계 기준 설정

조사 항목	통계 기준			
글로벌 수입 통계	HS CODE	0709.59	품명	기타(아가리쿠스 속이 아닌 식용 버섯 또는 송로)
필리핀 수입 통계		0709.59.90		기타(아가리쿠스 속이 아닌 식용 버섯)
한국산 수출 통계		0709.59.2000		표고버섯(신선/냉장)
필리핀 시장 규모	품목	Mushrooms, fresh or chilled(버섯(신선/냉장))		

표 1.8 표고버섯 국가별 HS CODE 분류

국가	HS CODE	품명
한국	0709	그 밖의 채소(신선/냉장)
	0709.59	기타
	0709.59.2000	표고버섯
필리핀	0709	기타 채소(신선/냉장)
	0709.59	기타(아가리쿠스 속이 아닌 식용 버섯 또는 송로)
	0709.59.90	기타(아가리쿠스 속이 아닌 식용 버섯)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 세계 HS 정보시스템(www.customs.go.kr)

표 1.9 HS CODE 검색 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URL
HS CODE	관세법령정보포털 3.0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getBuRyuList.po
	필리핀 관세청	http://customs.gov.ph/

8) 의뢰 제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한 '2018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을 조회하거나,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9) HS CODE는 6자리는 전세계 공통, 7-10번째 숫자는 각 나라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10자리, 필리핀은 8자리를 사용하고 있음

2) 글로벌 수입 통계(통계기준: HS CODE 0709.59)

□ 2017년 글로벌 수입 규모 1위 국가는 독일(12.3%)이며, 필리핀은 68위(0.02%)

- 2017년 글로벌 버섯 및 송로(신선/냉장) 수입 규모는 약 7억 8,000만 달러로 2015-2017년 연평균 성장률 2.8%를 기록
 - 버섯 및 송로(신선/냉장) 수입 1위 국가는 독일로 2017년 기준 약 9,600만 달러 (12.3%)를 수입하였으며 2015년-2017년 연평균 1.0%의 증가세
- 2017년 필리핀의 버섯 및 송로(신선/냉장) 수입 규모는 13만 1,000달러로 68위를 기록했으며, 2015년-2017년 동안 연평균 15.6%를 기록

표 1.10 글로벌 버섯 및 송로(신선/냉장) 수입 규모 추이(2015-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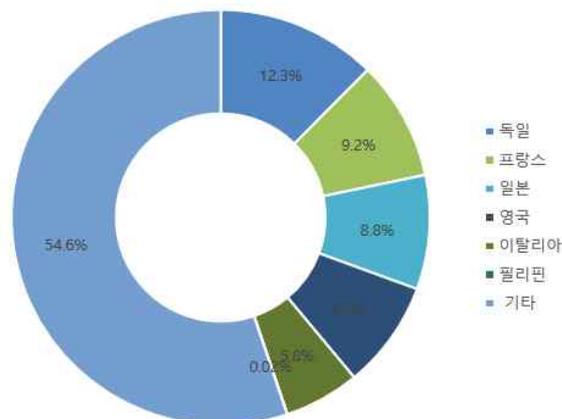
(단위: US 달러, %)

수입국		2015	2016	2017	2015-2017 연평균성장률 ¹⁰⁾
		금액	금액	금액	
글로벌		738,468,000	727,225,000	780,413,000	2.8
1	독일	94,043,000	100,418,000	95,902,000	1.0
2	프랑스	73,300,000	71,512,000	72,110,000	-0.8
3	이탈리아	52,509,000	45,500,000	68,664,000	14.4
4	일본	59,121,000	60,912,000	64,669,000	4.6
5	미국	39,254,000	35,342,000	45,088,000	7.2
76	필리핀	98,000	67,000	131,000	15.6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표 1.11 글로벌 버섯 및 송로(신선/냉장) 수입 비중(2017년)

(단위: %)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10) 연평균성장률 = (최신/최초연도)^{1/(n-1개년)}-1

3) 필리핀 수입 통계(통계기준: HS CODE 0709.59)

□ 2017년 필리핀 버섯 및 송로(신선/냉장) 수입 시장점유율 1위는 한국으로 91.6% 차지

- 2017년 필리핀의 버섯 및 송로(신선/냉장) 수입액은 13만 1,000달러로, 이는 2016년 6만 7,000달러에서 약 95.5% 증가
- 2017년 기준, 필리핀의 버섯 및 송로(신선/냉장) 수입 1위국은 한국으로, 수입액 12만 달러로 필리핀 내에서 91.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한국산 버섯이 필리핀 시장에서 매우 선전하고 있음을 확인
 - 그 뒤를 이어 영국이 8,000달러, 싱가포르가 3,000달러를 수입하였으며, 각각 시장 점유율은 6.1%, 2.3%를 기록
- 한편, 2017년에는 전년도에 비중이 높았던 중국의 수입액이 집계되지 않았는데, 필리핀 시장에서의 중국산 신선제품 판매 비중이 높은 경향을 감안할 때 중국산 버섯의 수입도 매우 높았을 것으로 예상

표 1.12 필리핀 버섯 및 송로(신선/냉장) 수입 규모 추이(2015-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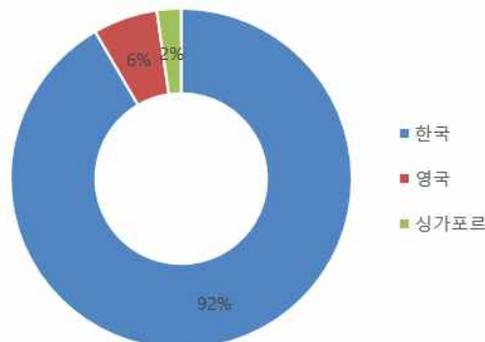
(단위: US 달러, %)

수입상대국		2015	2016	2017	2017년 시장점유율
		금액	금액	금액	
글로벌		98,000	67,000	131,000	100
1	한국	86,000	35,000	120,000	91.6
2	영국	0	0	8,000	6.1
3	싱가포르	0	0	3,000	2.3
4	네덜란드	0	18,000	0	0
5	중국	12,000	14,000	0	0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표 1.13 국가별 버섯 및 송로(신선/냉장) 시장점유율(2016년)

(단위: %)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4) 한국산 수출 통계(통계기준: HS CODE 0709.59.2000)

□ 한국산 표고버섯(신선/냉장)의 글로벌 수출량은 2016년에 약 30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액은 2015년에 약 32만 8,00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

○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 수출한 표고버섯(신선/냉동)의 수출량 면에서는 2016년에 약 30톤이 최고치였으나, 수출액 면에서는 2015년 약 32만 9,000달러가 최고치

□ 한국산 표고버섯(신선/냉장)의 필리핀 수출량은 높은 증가 추세

○ 2017년 한국이 필리핀 시장으로 수출한 표고버섯(신선/냉장)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한 5.6톤이며,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5% 가량 증가한 약 3만 2,000달러로, 매년 필리핀으로의 표고버섯 수출은 높은 증가세

표 1.14 한국산 표고버섯 수출 통계(수출대상국: 글로벌)

(단위: kg, US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중량 (연 증가율)	18,674.2	26,032.2 (39.4%)	30,368.4 (16.7%)	26,367.9 (▽13.2%)
금액 (연 증가율)	243,372.0	328,899.0 (35.1%)	308,966.0 (▽6.1%)	271,812.0 (▽12.0%)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¹¹⁾

표 1.15 한국산 표고버섯 수출 통계(수출대상국: 필리핀)

(단위: kg, US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중량 (연 증가율)	0	31.0	1,825.0 (5,887.1)	5,600.0 (306.8%)
금액 (연 증가율)	0	246.0	12,282.0 (4,992.7)	32,648.0 (265.8%)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11) 통계제공: 한국무역통계진흥원

5) 필리핀 버섯 시장규모(품목: 버섯(신선/냉장))

□ 필리핀 버섯 생산량 및 수입량 급등으로 인한 시장 규모 급격히 확대 추세

- 필리핀의 버섯 생산량은 2013년에 감소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16년에 580톤을 생산
- 필리핀의 버섯 수입량은 2014년에 잠시 주춤하였다가 2016년에 급등하여 296톤을 수입하였으며, 수출량은 간헐적으로 집계되었는데 그 수치는 매우 미비한 수준
- 버섯 생산량 급증에 따라 자급률도 2015년도에 75.5%까지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 수입량이 급등하면서 자급률은 66.2%로 감소
 - 필리핀에서 재배되는 버섯은 낮은 생산 비용, 풍부하고 저렴한 기질, 높은 수요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¹²⁾
- 6%에 달하는 경제성장률,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등에 따른 중상류층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버섯 생산 장려 정책으로 인해 버섯의 생산량과 수입량이 급등하며 버섯시장 규모가 확장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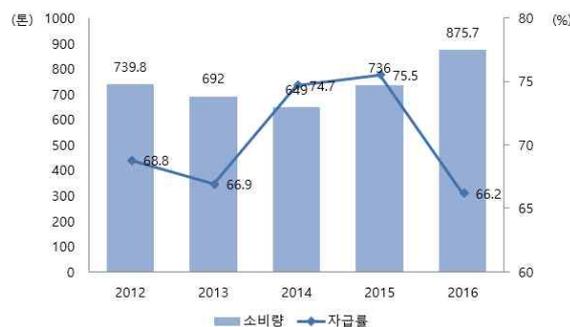
표 1.16 필리핀 버섯(신선/냉장) 수급 동향

(단위: 톤, US 달러)

연도	생산량	수입		수출		자급률 ¹³⁾ (%)	소비량 ¹⁴⁾
		수입량	수입액	수출량	수출액		
2012	509	231	709,000	0.2	500	68.8	739.8
2013	463	231	640,000	2	4,900	66.9	692
2014	485	164	237,000	-	-	74.7	649
2015	556	180	268,000	-	-	75.5	736
2016	580	296	355,000	0.3	300	66.2	875.7

자료: 유엔식량농업기구(www.fao.org), UN data(data.un.org)

표 1.17 필리핀 버섯(신선/냉장) 시장 규모 추이(2012-2016년)



자료: 유엔식량농업기구(www.fao.org)

12) CHANG, Hyun You et al. Status and Prospect of Mushroom Industry in the Philippines, JPAIR Multidisciplinary Research, 2014.3.

13) 자급률 = 생산량/소비량*100%로 산출한 추정치임

14) 소비량 = 생산량+수입량-수출량으로 산출한 추정치임



II. 시장 트렌드

1. 소비자 트렌드
2. 버섯 생산 장려 정책 트렌드
3. 버섯 소비 및 제품 트렌드
4. 신선 식품 유통 트렌드

시장 트렌드 개요

1. 소비자 트렌드

- ❖ 필리핀 소비자들은 국제적인 요리에 개방되어 있으며 외식 문화 성장세
- ❖ 도시화 추세에 따른 중산층 확대에 의한 수입 식품 시장 긍정적 전망
- ❖ 인구통계학적으로 젊은 노동인구가 많고 젊은 층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온라인 식품 시장 긍정적 전망
- ❖ 소비자들의 경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일부 매장과 인터넷 소매업에서 더욱 강세
- ❖ 극심한 빈부격차에 따라 소비 경향이 양분화된 가운데, 중산층의 성장으로 인해 수입 식품 시장 성장 전망

2. 버섯 생산 및 소비 장려 정책 트렌드

- ❖ 필리핀 정부 차원의 버섯 생산 및 소비 장려 정책 시행으로 인한 효과
 - ① 최근 4년간 버섯 생산량 증가
 - ② 버섯에 대한 인지도 상승 및 소비 저변 확대
 - ③ 버섯 시장 확대에 기여
 - ④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수입량 증대 효과 기대

3. 버섯 소비 및 제품 트렌드

- ❖ 필리핀 정부의 버섯 생산 및 소비 장려 정책,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버섯 버거의 인기 상승세, 대규모 버섯기업의 마케팅 노력 등으로 인해 버섯 소비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
- ❖ 버섯 패스트푸드점 ‘머쉬룸버거’의 성공사례는 버섯 소비의 저변 확대에 영향을 끼친 획기적인 사례

4. 신선 식품 유통 트렌드

- ❖ 현지 대형유통업체들이 한국 식품 코너를 따로 운영하기도 하나, 신선식품의 경우 중국 화교들의 독점, 관리 미흡이 진출의 어려움으로 확인
- ❖ 현지 대형유통업체 진출 계획 시, 필리핀 비즈니스 팁을 참조하여 현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친밀감 형성 및 적극적인 관리 유도를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

1. 소비자 트렌드

□ 필리핀 소비자, 국제적인 요리에 개방되어 있으며 외식 문화 성장세

- 필리핀은 ASEAN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시장으로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식이 선호도가 없으며 국제적인 요리에 개방되어 있음
- 필리핀 식품시장은 활발한 경향을 띠며, 외식문화가 성장 중인 도시에서는 외국인사 업자들이 외식 비즈니스에 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움
-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필리핀은 음식과 식사에 지출을 늘리는 추세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필리핀 소비자에게 저렴한 식사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인기가 많음¹⁵⁾

□ 도시화 추세에 따른 중산층 확대에 의한 수입 식품 시장 긍정적 전망

- 도시화는 필리핀에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인구의 40%가 필리핀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인 중앙 루손과 카라바존(메트로 마닐라 남부 루손 섬 일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메트로 마닐라에 인구의 14%가 분포
- 이러한 도시 지역은 구매력이 가장 높으며,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해 중산층이 확대되는 추세
- 도시 지역에서는 외국 브랜드, 슈퍼마켓, 식음료 매장을 수용하는 대형 쇼핑몰의 형태가 급성장 중이며, 소비자들은 일본, 한국 및 여타 ASEAN 국가들에서 온 수입 식품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향후 수입 식품 시장의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
- 메트로 마닐라에서는 편의점이 점차 '사리사리' 매장(구멍가게)을 대체하고 있으며, BPO¹⁶⁾ 센터에서 일하는 24시간 교대 근무자들은 종종 간식, 일용품 및 패스트푸드 품목을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을 방문하는 추세¹⁷⁾

15) 「The Philippines: Consumer Market Opportunities」, HKTDC, 2017.7.19

16)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

17) 「The Philippines: Consumer Market Opportunities」, HKTDC, 2017.7.19

□ 젊은 노동인구가 많고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온라인 식품 시장 긍정적 전망세

- 2018년 1월 기준 필리핀의 인터넷 보급률은 63%로 인터넷 사용자 평균 연령은 23.7세로 세계적으로 매우 젊은 편에 속하며, 필리핀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매일 소셜 미디어에 평균 4시간 13분을 소비하며,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에 이어 4위로 조사됨¹⁸⁾
- 노동인구의 비율이 아동 및 노인에 비해 많으며, 특히 젊은 노동인구가 많은데, 기술에 익숙한 젊은 인터넷 사용자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소비 결정을 내릴 때 소셜 미디어 리뷰에 의존하여, 모바일 플랫폼은 젊은 필리핀 소비자에게 어필
- 젊은 인구가 많은 필리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필리핀 온라인 식품 소매업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일부 매장과 인터넷 소매업에서 더욱 강세

- 소비자들의 경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일부 매장과 인터넷 소매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부각됨
- 필리핀 소비자들은 가처분 소득의 증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건강 의식 향상, 건강 증진 또는 매력적인 몸매를 향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제품에 대한 선택권에 더욱 노출되게 되었음¹⁹⁾

□ 극심한 빈부격차에 따라 소비 경향이 양분화된 가운데, 중산층의 성장으로 인해 수입 식품 시장 성장 전망

- 필리핀 인구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 화교가 경제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 및 건강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음
- 필리핀의 빈곤층은 2006년 26.6%에서 2015년 21.6%로 감소하며 점차로 줄어드는 추세이나 여전히 총인구의 1/5이상(약 2,200만 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빈곤구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소비시장은 크게 고가시장(현대식 백화점 및 쇼핑몰)과 저가시장(재래시장)으로 크게 구분되는 가운데, 도시에서의 중산층의 성장으로 수입 식품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높아지고 전망도 밝을 것으로 분석²⁰⁾

18) 「DIGITAL IN 2018」, We are Social, Hootsuite, 2018.

19) 「Euromonitor Health in the Philippines」, Euromonitor International, November 2017

2. 생산 및 소비 장려 정책 트렌드

□ 필리핀 농업부, 다양한 버섯 생산 장려 정책을 시행

- 필리핀 농업부는 국가쌀 프로그램, 농업연구소, 쌀연구소 등 산하기관을 통해 버섯 재배, 가공, 마케팅, 교육 시행
- 버섯 생산은 고품질의 식품 개발과 사료 보조제 및 버섯 기질을 사용한 후 발생하는 유기질 비료 생산을 통해 농민에게 추가적인 수입원이 되므로 필리핀 농업부는 필리핀 농가에 버섯 재배를 장려

표 2.1 필리핀 농업부가 시행한 버섯 생산 장려 정책 및 주요 내용

착수 연도	사업명	주요 내용
2013	커뮤니티 기반 버섯 생산 프로젝트	- 2013년 농업부의 국가쌀프로그램(National Rice Program)이 국가 차원의 '커뮤니티 기반 버섯 생산(Community-based Mushroom Production, CBMP)' 프로젝트를 지원 ²¹⁾
2013	버섯기술개발센터 건립	- 2013년 필리핀 농업부는 루손의 타라크(Tarlac)주에 농업연구소의 기관개발보조금을 재원으로 800만 페소(약 1억 9천만원)를 투자해 버섯기술개발센터(Mushroom Technology and Development Center, MTDC)를 건립
2015	팔라야마난 플러스 프로젝트	- 2015년 3월 10일 농업부 산하 필리핀 쌀연구소, 팔라야마난 플러스(Palayamanan Plus) 프로젝트 ²²⁾ 착수 ²³⁾
2017	버섯연구소 개소	- 2017년 11월 28일 필리핀 남부 다바오오리엔탈주 마티(Mati)시 다바오 기업농연구기지(Davao Commercial Agriculture Research Station, DaCARS) 내에 버섯연구소 개소

20) 「Making Growth Work for the Poor: A Poverty Assessment for the Philippines」, The World Bank, 2018.1.1

21) Anne Camille B. Brion, 'Mushroom continue to 'sprout' in Central Luzon', Bureau of Agricultural Research(www.bar.gov.ph)

22) 필리핀 쌀연구소는 쌀 기반 커뮤니티에서 식량 안보 및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팔라야마난 시스템을 활발히 홍보했음. 팔라야마난 시스템은 2015년 3월부터 쌀 기반 생산 시스템 모델인 '팔라야마난 플러스'로 전환됨.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1) 작물 생산, 2) 가축 생산, 3) 버섯 생산, 4) 유기 비료, 5) 기계화. 이 프로젝트는 6개 지역(Pampanga, Bulacan, Aurora, Nueva Ecija, Pangasinan, and Agusan del Norte)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됨.

23) Diana Rose A. de Leon, 'Palayamanan Plus launched in Pampanga', BAR Chronicle(2015.3.)(www.bar.gov.ph)

□ 필리핀 농업부, 다양한 버섯 소비 장려 정책을 시행

- 필리핀 농업부는 버섯 소비 장려를 위해 버섯요리책 발간, 요리 대회 개최, 버섯 제품 개발을 지원

표 2.2 필리핀 농업부가 시행한 버섯 소비 장려 정책 및 주요 내용

착수 연도	사업명 ²⁴⁾	주요 내용
2017	버섯요리책 'Mushroom Feast' 발간	- 2017년 2월 필리핀 쌀연구소(PhilRice)와 중앙루손주립대학교는 팔라야마난 플러스(Palayamanan Plu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버섯 요리책 'Mushroom Feast'를 발간 • 전체 9개, 메인요리 16개, 디저트 4개, 스낵 요리법 8개를 제공
최근	버섯 제품 개발 업무 지원	- 필리핀 농업부 산하 농업연구소는 국가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 (Nationa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gram)을 통해 버섯 제품 개발 업무를 지원 • 패티, 시식 ²⁵⁾ , 토치노 ²⁶⁾ , 아이스크림, 파스타, 소스 및 기타 제품과 같은 버섯 관련 제품을 개발 ²⁷⁾

□ 필리핀 정부의 국가 차원의 버섯 생산 및 소비 장려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효과

- ① 최근 4년간 버섯 생산량 증가, ② 버섯에 대한 인지도 상승 및 소비 저변 확대, ③ 궁극적으로는 버섯 시장 확대에 기여, ④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수입량 증대 효과 기대

24) 사진 자료: 커뮤니티 기반 버섯생산 프로젝트, 버섯기술개발센터, 농업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 팔라야마난 플러스 프로젝트 유튜브 동영상

25) 시식은 필리핀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등을 다져서 양파, 고추, 마늘 등을 넣고 뜨겁게 달군 돌판에 올려놓고 먹는 음식임

26) 토치노는 돼지고기에 꿀을 양념하여 숯불에 구워먹는 필리핀 음식임

27) Anne Camille B. Brion, 'Mushroom continue to 'sprout' in Central Luzon', Bureau of Agricultural Research(www.bar.gov.ph)

3. 버섯 소비 및 제품 트렌드

□ 필리핀 가정 및 외식업계에서 버섯의 인기 상승세

- 필리핀에서 버섯은 일반 필리핀인들에게는 높은 가격 때문에 특별한 음식으로 여겨지기도 함
- 그러나, 필리핀 정부의 버섯 생산 장려 정책, 버섯 버거의 인기 상승세, 버섯 생산 대기업의 버섯 무료 배포 등과 같은 마케팅에 힘입어 가정 소비자로부터 호텔 및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버섯의 인기는 상승 추세로 향후 버섯 시장의 전망은 긍정적

□ 필리핀에서 대중적으로 재배되는 버섯은 느타리버섯과 풀버섯, 표고버섯은 덜 친숙한 편

- 필리핀에서는 다양한 버섯을 소비하는데, 대중적으로 재배되는 버섯 종류는 느타리버섯과 풀버섯이며, 양송이버섯이나 표고버섯은 덜 친숙한 편²⁸⁾

□ 표고버섯의 효능 및 풍미, 질감 인정, 고기 대용으로도 활용

-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질환, 특정 유형의 암, 알레르기 위험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표고버섯의 맛은 양송이 버섯, 포토벨로 버섯, 진주 버섯과 같은 다른 종류의 버섯들보다 4-10배 정도 더 풍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 표고버섯의 유연한 특성으로 인해 필리핀에서는 주 요리에 보조 재료부터 주 재료까지 활용되고 있음
- 건강 및 웰빙을 옹호하는 많은 식품점에서 표고버섯의 영양성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기의 대용품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 고기 대용으로 표고버섯을 주 재료로 활용하여 만든 아도보²⁹⁾

- 아도보는 필리핀의 전통 요리로서 주재료로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사용하는데 한 퓨전 레스토랑에서 질감이 유사한 표고버섯을 활용하여 만든 아도보(adobo)를 판매³⁰⁾

28) D.Corazon and M. Licayao, "Gathering practices and actual use of wild edible mushrooms among ethnic groups in the Cordilleras, Philippines", 「Diversity and change in food wellbeing, Cases from Southeast Asia and Nepal」, Wageningen Academic Publishers, 2018.4.6 p. 71-86

29) 아도보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보통 돼지고기나 닭고기에 야채, 오징어 등을 마늘, 식초, 후추, 마늘 등으로 양념해 졸인 볶음 요리임

□ 버섯 패스트푸드점 ‘머쉬룸버거(Mushroom Burger)’, 다양한 종류의 버섯 버거, 버섯 튀김을 비롯한 표고버섯을 활용한 버섯 시시그, 판싯칸톤 파스타 판매

- 버섯 패스트푸드점 ‘머쉬룸버거(Mushroom Burger)’에서 다양한 종류의 버섯 버거, 버섯 튀김, 버섯 수프, 버거 스테이크 등을 비롯한 표고버섯을 활용한 버섯 시시그, 판싯칸톤 파스타를 판매 중
- ‘머쉬룸버거(Mushroom Burger)’ 체인점은 타가이타이(Tagaytay)시, 케손(Quezon)시 웨스트애버뉴 구역, 라스피냐스(Las Pinas)시에 위치
- 버섯 버거 세트의 가격대는 75~139페소(약 1.4~2.7 달러)까지로 메뉴마다 다양하고, 표고버섯을 활용한 판싯칸톤 파스타와 버섯 시시그는 1인분에 각각 111페소(약 2.1 달러)이며, 배달용은 5-17인분까지로 350-918페소(약 6.7-17.5달러)로 판매 중
- 버섯 패스트푸드점 ‘머쉬룸버거’의 성공사례는 버섯 소비의 저변 확대에 영향을 끼친 획기적인 사례

버섯 프랜차이즈 ‘머쉬룸 버거(Mushroom burger)’의 성공사례

- 버섯 프랜차이즈 대표 알베르토 다이(Alberto Dy)는 1976년 칼루칸(Calocan)에서 버섯 사업을 시작하였고, 3년 후 타가이타이(Tagaytay)로 이전하여 버섯 농장을 운영하다가 2004년 사업을 확장하여 버섯 패스트푸드점을 오픈
- 수차례의 연구 끝에 버섯 버거를 개발 및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저렴하게 판매하다가 유명 햄버거 체인인 Tropical Hut와 유사한 가격대로 변경하고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과 비슷한 포장지를 사용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버섯 버거 외 버섯으로 만든 메뉴를 확대
- 2007년 이후, 케손 시 웨스트애버뉴와 카티푸난(Katipunan)에 버섯 패스트푸드점을 추가로 오픈
- 버섯은 주로 Dy 농장에서 조달되며, 타가이타이 버섯 농장에서는 주로 아발론 버섯을 재배 중
- 칼루칸 시에서의 초기 투자 금액은 12만 페소(현재 가치로는 약 250만 페소로 추정)로 타가이타이로 옮기면서 17개의 버섯 재배 하우스, 그린하우스, 멸균 시설, 농기구 구매를 위해 500만 페소를 추가로 투자
- Dy에 따르면, 버섯 재배에는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며, 요즘은 2,500만 페소(약 47만 5,000달러(약 5억 1,000만원))가 필요함, 소규모 버섯 재배자가 더 큰 규모의 버섯 재배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운영 하는 것을 권장
- Dy 버섯 농장의 2015년 기준 하루 평균 매출량은 약 700-800kg
- Dy는 레스토랑 주인 및 요리사들에게 버섯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마케팅을 펼치며, 레스토랑, 호텔, 슈퍼마켓에서 Dy의 버섯을 구입하도록 하였고, 한 예로 마닐라 힐튼이 튀김 버섯을 정식 요리로 채택하는데 영향을 끼침³¹⁾

30) Caren Bayhon-Yrastrza, 'It's all about shiitake!', ABS-CBN NEWS, 2010.10.29. 1:41 AM(news.abs-cbn.com)

31) Joel D. Adriano, 'Real tales: Creating a profitable business out of mushrooms', Entrepreneur Philippines, 2015. 8. 28

4. 신선 식품 유통 트렌드

□ 소매 식품 유통 트렌드

-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대형 슈퍼마켓, 하이퍼마트, 도매업체와 직접 컨택
- 구멍가게나 사리사리 매장과 같은 소형 상점은 중개상이나 중간 상인을 통합
- 농촌지역이나 지방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하위 유통업자를 고용하여 유통을 진행하며, 이러한 관행은 유통비용을 줄여 가격인상을 축소시키고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
- 인프라가 개선되긴 하였으나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메트로 마닐라와 같은 도시 지역의 교통 상황은 유통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
- 공급업체와 소매업체 간의 의사소통이 개선 중
- 주요 소매 슈퍼마켓 체인은 운영에 전산화를 시행 중
- 온라인 식품 소매업은 필리핀에서는 아직 인기가 없음
 - 마닐라의 일부 소비자들은 시간 부족 및 열악한 교통 상황으로 온라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실제 매장에서 직접 쇼핑하는 것을 선호³²⁾

□ 필리핀에서의 한국산 신선 식품 유통 현황

- 필리핀 소비자들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한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한국 생활과 식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냉장 유통 인프라가 열악하여 신선 농산품 판매는 부진한 편이고 필리핀으로의 한국산 수출 신선식품으로는 한국산 버섯류와 일부 과일류에 불과
- 현지 대형유통업체인 SM Hypermarket/Supermarket과 Rustan's, Robinson Supermarket 등 여러 유통업체들이 한국 식품 코너를 따로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신선 식품의 경우 중국 화교들의 독점, 관리 미흡이 진출의 어려움으로 확인
- 현지 대형유통업체 진출 계획 시, 필리핀 비즈니스 팀을 참조하여 현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친밀감 형성 및 적극적인 관리 유도를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

32) 「Philippines: Retail Foods - 2017 Food Retail Sectoral Report」, USDA, 2017.12.6



Ⅲ. 통관 및 제도

1. 통관 및 검역
2. 인증정보
3. 리벨링
4. 위생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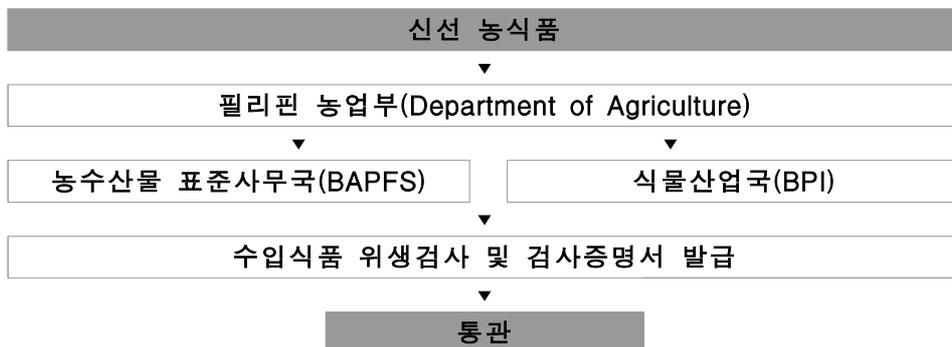
통관 및 검역 개요

❖ 필리핀 농식품 수출입 프로세스

필리핀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리 기관인 농수산물표준사무국(BAFPS)와 식품의약국(FDA)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6단계의 수출입 프로세스를 이행해야 함

번호	프로세스	주요내용	체크사항
1	수출계약	- 거래선(바이어) 발굴 - 계약진행	-
2	서류준비	- 포장명세서 - 상업송장 - 세관 수출신고서 - 선하증권 - 수출 라이선스	- 라벨링 필수 기재사항 • 제품명,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표, 용량, 생산자 및 유통업체 정보
3	선적/출항	- 수출통관 - 포워딩 업체 지정 - 운송 * 필리핀 관세국에 기업정보 등록하고 수입면허(CAS) 획득	- 주요항만 • 마닐라(Manila) • 세부(Cebu)
4	수입신고/검역	- 수입신고는 단일통관 창구 (National Single Window)를 통해 신고, 검역은 품목별로 농수산물 표준사무국(BAFPS)과 필리핀식품검역국(FDA)에서 진행	- 필리핀 농수산물 표준사무국 (www.bafps.da.gov.ph) • 신선식품 검역 및 모니터링을 수행 - 필리핀 식품의약국 (www.fda.gov.ph) • 식품 검역과 위생 및 안전을 관리 감독
5	세금납부	- 세금 또는 담보 제출 후 반출 가능	- 필리핀 관세청 (www.customs.go.ph) • 세관 규정, 세율 조회, 항만 정보 등 안내
6	통관/현지유통	- 세관 서류제출 - 현지 바이어 화물인수	-

❖ 품목별 통관 절차



관세 및 세금 개요

❖ 필리핀 HS-CODE 0709.59.90의 협정세율(2017년 기준)³³⁾

HS CODE 품명	구 분	관세율	원산지 기준
0709.59.90 기타 (아가리쿠스 속이 아닌 식용 버섯)	최혜국 (Most favored nation, MFN)	10%	-
	아세안 무역협정 (ATIGA)	0%-All	-
	한-아세안 무역협정 (AKFTA)	표고버섯 - 5% (Oak mushrooms) 기타(Other) - 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필리핀 부가가치세 정보

필리핀에서 HS CODE 0709 - 부가세 12% 부과

❖ 필리핀 관세율 확인 방법

- 1) '관세법령정보포털 3.0 > 세계 HS > 관세율표'에서 필리핀을 선택한 후 확인하고자 하는 품목의 HS Code를 입력하면, 해당 품목의 최혜국, 아세안 무역협정, 한-아세안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확인이 가능
- 2)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 > FTA/관세 > 통합관세비교(한국 FTA기준)'에서 FTA 협정 정보, 관세율, 원산지 기준 확인이 가능
- 3) 필리핀 사이트의 경우, '필리핀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 웹사이트(tariffcommission.gov.ph) > PHILIPPINES TARIFF FINDER'에 들어가서, 필리핀 HS CODE를 입력하면, 최혜국, 아세안 무역협정, 한-아세안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및 원산지 기준 확인이 가능

분류	기관 사이트명	URL
관세율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통합무역정보서비스	www.tradenavi.or.kr
	필리핀 관세위원회	tariffcommission.gov.ph/finder

관세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면,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콜센터' 혹은 'FTA 콜센터'의 관세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문 관세 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도록 함

분류	기관명
관세율	트레이드 콜센터
	FTA 콜센터

³³⁾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1. 통관 및 검역

1) 통관 및 검역 절차

□ 필리핀으로의 농식품 수출 선적 전 준비사항

-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리핀 수입업자가 선적 전에 필리핀 관세국에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수입면허(CAS)를 획득해야 함
 - 수입면허를 요구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 필요
- 해당 수입 물품이 허가·규제·금지 품목 해당 여부 및 규제 내용을 무역산업부 수입국(Bureau of Import Services, BIS)을 통해 사전 확인 필요
- 수입이 규제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이 복잡하고 다수의 증빙을 요구하고 있는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
 - 신선과일 및 야채는 필리핀 농업부(DA)에서 수입을 규제하고 있음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과일 및 야채는 식물산업국의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검역승인이 필요하며, 필리핀 수입업자는 매 선적에 대해 검역승인을 신청하여 진행해야 함
- 한국 식품기업이 식품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증명을 필리핀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나 필리핀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등록하고 거래하게 될 도시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필리핀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등에도 미리 등록하여 수출 물품이 통관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모든 수출업자는 통관 과정에서 BIR 등록 시 제공되는 고유의 납세등록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을 사용하게 됨
- 수출업자는 필리핀 수입업자에게 견적송장을 보낸 후 무역거래가 확정되고 나면 수입업자 측에서 사인한 견적송장을 받아야 함
 - 수출업자가 운송 준비를 끝낸 후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추가 서류들과 함께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AL(Authority to Load)에서 이를 검사함
 - 한편, 사전수출승인품목은 관련 수출승인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특정 품목의 수출에 대해 품목별로 개별 인증기관의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해외통관 애로사항 문의처

- 해외통관 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관세청 해외 통관 지원센터,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 관세청에 문의할 것을 권장함

□ 수입 신고

- 수입업자가 단일통관 창구(National Single Window)를 통해 수입 신고하며, 수입통관 서류 및 요건을 일괄 제출 가능
- 과세가격 2,000페소 초과 및 상업용 물품은 정식 통관(Formal Entry)으로, 2,000 페소 이하 및 개인용 물품은 약식 통관(Informal Entry)으로 진행
- 구비 서류:
 - 상업송장, 견적송장,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 수입신고서, 라이선스 (예: BFAD 라이선스) 또는 원산지 증명서 및 품목별 인증(필요 시) 등
- 필리핀 관세청은 2018년 3월 12일자로 수입업체 인증요건을 새로이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수입업체 인증요건

1. 신청서 - 모든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고, 공증되어야 하며, 모든 페이지마다 신청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신청서는 인쇄된 내용이어야 함.
2. 신청수수료 납부를 증빙하는 세관담당공무원(Bureau of Customs Officer Receipt (BCOR))으로부터 수령된 영수증(녹색시트)
3. 비서 등재 확인서(법인의 경우) / 진술서(개인자영업자의 경우) / 인가 받을 수입업체의 지정된 서명인의 원본 서명이 포함된 파트너쉽 결의안
4.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신청인의 필리핀연방조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에서 발급된 범죄경력 조회서 원본
5. 개인자영업자에만 해당-신규 신청시 대표자의 소득세환급내역(income tax return(ITR)), 재신청시 해당 사업장의 소득세환급내용.
6. 신청인, 대표자, 책임자의 사진이 부착되고 서명이 포함된 신분증
7. 통상 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등록된 최신회사정보(법인용) / 파트너쉽 기사 (파트너쉽용) 협동개발권한(협동조합용)
8. 신청인, 대표자, 책임자의 서명과 개인 신상정보(2x2사진부착)
9. 사무실 및 창고 등의 실제 사진이 포함된 회사소개서
10. 고객정보등록시스템(client profile registration system(CPRS))의 신청서 사본과 신청내용에 대한 이메일 내용.
11. 재신청하는 경우 기존의 수입업체 인증 확인서
12. 가능한 경우 해당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은 면허, 허가, 인증서 (예, 식품- 식품 및 의약품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육류(검역처 Inspection Service 등), 쌀(식품처 National Food Authority 등), 설탕(설탕규제관련부처 Sugar regulatory Authority)
13. 해당되는 경우 보증서
14. 위임장 (special power of attorney(SPA) 또는 대표자의 서명이 포함된 인증서 (법인의 경우) 또는 소유주 (단독 소유권의 경우)

□ 검사 및 심사

- 수입될 물품은 품목분류(HS Code)에 따라 금지(Banned, Red lane), 검사 완화(Liberalized, Green lane), 관련 국가기관에 의한 규제(Regulated)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관세국(Bureau of Customs)은 심사 및 검사 절차 수행
- Green Lane의 경우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Super Green Lane(Plus)제도를 두어 검사 생략 및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표 3.2 필리핀 업체 분류별 통관 진행방식

	업체 분류기준	통관 진행방식
SGL	국가공인 우수인증 보유업체	화물 도착 전 통관신고
GL	수입 이력이 준수한 업체	화물 도착 전 통관신고 사후 관세청 회계조사
RL	신규업체 / 수입 이력 불량업체	화물 도착 전 통관신고 서류 및 실물검사 사후 관세청 회계조사

□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관세 납부 심사 또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관세 납부 후 물품 반출이 허가됨
 - 관세 등 조세는 은행(Authorized agent bank)을 통해 송금하거나, 관세에 상응하는 담보확인 후 반출 가능
- 물품 반출
 - 세관은 관세 납부 사실 확인 후 수입자에게 물품을 양도하여 반출 가능하게 함

2) 통관 및 검역 시 유의사항

□ 필리핀 식품 및 농산물 수입 규제

- 필리핀에서 식품 안전 기준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두 개의 주요기관은 필리핀 보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DA) 산하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과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 농수산물표준사무국(Bureau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Product Standards, BAFPS)로 확인
 - FDA는 식약품화장품법(Food and Drug and Cosmetics Act)에 따라 가공식품의 안전을 담당하고, BAFPS는 농수산물근대화법(Agriculture and Fisheries Modernization Act, AFMA)³⁴)에 따라 신선 및 일차적 농수산물의 안전을 담당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및 농산물은 필리핀의 식품, 건강 및 식물 검역법을 준수해야 함
 - 필리핀은 식품에 대한 국가 미생물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지침과 미국 식품의약품청(US FDA) 및 기타 국가의 유사 규제 기관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식품 규정이 패턴화되어 있음

□ 식물 및 식물 제품의 수입허가³⁵⁾

- 식물과 식물 제품을 수입하는 개인과 회사는 수입 전에 식품 검역 서비스(Plant Quarantine Service, PQS)를 받아야 하며, 수입허가 신청서(BPI Q Form No. 1)를 작성
- 수입허가나 식물위생검역 증명서가 없는 화물은 해당 서류가 제시될 때까지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PQS로 보내지거나 세관에 구류되고, 수입허가나 식물위생검역 증명서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국으로 반출되거나 다른 국가로 재수출되거나 파기됨
- 수입허가가 요청되지 않는 수입(단, 검사나 수수료는 적용됨)
 - 식물 검역 제한이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식물 제품, 제한된 수량의 과일과 야채, 식품이나 동물사료 또는 가공이나 제조를 위한 식물 제품

34) DA 산하 BAFPS는 1997년에 설립되었음. 주요 임무는 신선 및 일차적 농수산물의 가공, 보존, 포장, 라벨링, 수입, 수출, 유통 및 광고의 품질 표준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임. 또한, BAFPS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 및 관행과 접목시켜, 식품 안전, 무역 표준 및 실행 규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수립하는데 기여해 왔음. BAFPS는 Codex Alimentarius 및 기타 식품안전표준규제기관에 대한 국가문의처 역할을 함. 식품 안전에 관한 국제 개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35)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s.go.kr)

- 제대로 건조 또는 살균되거나 식물 표본집, 흙이나 모래가 묻어있지 않는 경우
- 꽃, 부케와 흙이나 모래, 다른 금지된 물질이 묻어있지 않는 꽃 장식품

표 3.3 필리핀 식물 및 식물 제품의 수입허가 절차

번호	항목	설명
1	신청서 평가 및 해충위험분석 (pest risk analysis, P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를 발행하기 전에 신청서 평가와 해충위험분석(pest risk analysis, PRA) 실시 - 작성된 신청서 평가 - 수입허가 발행을 위한 신청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가 승인되고 수수료가 지불되면 신청한 수입업자에게 수입허가 4부(원본 1부, 사본 3부)를 발행 • 원본은 수입항의 식물검역 담당자에게 제출 • 사본 1부는 약정된 조건과 조건의 준수를 위해 원산지국의 식물검역소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식물검역소(www.npqg.go.kr)에 검역 신청 시 제출 • 사본 1부는 수입항의 세관에 제출 • 사본 1부는 PQS에 제출
2	물품 도착 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업자는 화물 도착 최소 24시간 전에 PQS에 검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국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위생검역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www.qia.go.kr)에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 • PQS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원본 카피) • Bill of landing / airway bill • 적하목록과 세관 반입신고서(사본)

- o 표고버섯은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 가능한 물품으로서 식물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출 가능
- 단, 필리핀 현지에서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물품이므로 수출 전 내용 확인 및 허가 필요

사전수입허가가 요구되는 물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아있는 식물 2. 묘목(번식물질로 사용되는 생명력이 있는 그들의 일부분도 포함) 3. 특별검역령하에서 수입금지 또는 제한품으로 공포된 신선 과일, 채소 및 기타물품, 유해한 과일파리류가 분포하는 국가산 연하고 육질이 많은 과일 4.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선충 및 기타 식물병원균의 순수한 배양체 5. 균사를 포함한 버섯 배양체 6. 조류의 배양체, 근류균 7. 흙과 생명체 격리용 식물성 물질 8. 다른 식물배양체

3) FTA 정보

□ 한-ASEAN FTA 개요

- 한-ASEAN FTA는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ASEAN 각 회원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양허 유형에 따라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거나 또는 인하 스케줄에 따라 순차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됨
- FTA 협정세율은 MFN 세율의 예외로서, FTA 체결국 간에는 양국 간 협상 결과에 따라 WTO 양허세율(MFN) 보다 낮은 FTA 협정세율을 우선적으로 상호 적용할 수 있음
- 한-ASEAN FTA에서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가 이루어지며, 협정문 상의 원산지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아 수입 물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주의사항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민감 품목군에 속하고, 아세안 상대국 수입국이 해당물품을 일반 품목군으로 분류한 경우 상호대응세율에 의하여 수입상대국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서, 민감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사전 확인 필요

표 3.4 필리핀 HS-CODE 0709.59.90의 협정세율(2017년 기준)

HS CODE	품명	구분	관세율	원산지 기준
0709.59.90	기타 (아가리쿠스 속이 아닌 식용 버섯)	최혜국 (Most favored nation, MFN)	10%	-
		아세안 무역협정(ATIGA)	0%-All	-
		한-아세안 무역협정 (AKFTA)	표고버섯 - 5% (Oak mushrooms) 기타(Other) - 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자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TRADENAVI(www.tradenavi.or.kr)

표 3.5 한-ASEAN FTA 주요 정보

구분	주요 내용
발효일	2007.6.1
의의	-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로서, 총 10개 회원국에 6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 - 현재, 한-중-일 등과 함께 ASEAN+3, ASEAN+1 등과 같은 형태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 - ASEAN은 주로 저임금 기반 우회생산기지나 원자재 생산국으로 인식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부터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구매력 상승으로 현지 내수시장을 타깃한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원산지 증명서	- 발급기관: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개성공단외의 경우 관세청에 한정) - 증명서식: 통일서식(AK) - 유효기간: 1년 - 사용언어: 영어 - 사용횟수: 1회 사용원칙
직접운송 원칙	-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2) 협정당사자간 의직접운송 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직접 필리핀으로 운송된 경우에만 FTA를 적용받을 수 있음(단, 지리적, 운송상의 목적으로 단순 경유한 경우는 제외)

자료: 관세청종합솔루션(www.customs.go.kr)

2. 인증정보

1) 원산지 증명서(필수)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 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 물품이 해당 원산지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 필리핀 표고버섯 수출의 경우, 한-ASEAN FTA에 의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반드시 준비

표 3.6 필리핀 표고버섯 수출 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구분	주요 내용
증명서명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	관세청, 상공회의소
성격	필수인증
대상국 및 품목확인	- 기관발급 대상 협정확인(ex) 필리핀의 경우, 한-ASEAN FTA) - 상대국의 HS 6단위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상대국의 HS 최종단위별 협정세율 확인
구비서류	-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발급시기 및 신청자	- 신청 시기: 한-ASEAN FTA의 경우 - 선적 전, 선적 시, 선적 직후 - 신청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
비용	무료
소요기간	2일
유효기간	1년
사용언어	영어

표 3.7 필리핀 표고버섯(Oak mushroom)의 원산지 결정기준 및 협정세율

구분	주요 내용
원산지 결정기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생산된 것”
한-ASEAN FTA 협정세율	표고버섯의 경우: 5%

2) 할랄 인증(선택)

- 할랄은 이슬람 율법 내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으로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이지만 필리핀 농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인 이슬람권 수출을 위해 할랄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해 옴
- 2011년 필리핀 무역산업부에서 Halal Trade Development Program을 통해 할랄 식품에 대한 국가표준 작업을 추진
- 필리핀 정부는 이슬람교도 350만명이 분포하고 있는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지역 뿐만 아니라 중동국가 및 인근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할랄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 필리핀 할랄 인증 기관인 필리핀 할랄인증기관(Islamic Da'wah Council of the Philippines, IDCP)에 신청서 제출 후 성분 검사와 제조 및 가공 공장 감사를 거쳐 할랄 인증 취득 가능

표 3.8 할랄 인증 방법

인증명	할랄	
발행기관	IDCP	
성격	선택 인증	
제출서류	할랄 인증 신청서	

자료: IDCP(www.idcpahalal.com)

3)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선택)

- HACCP 인증은 안전한 식품의 생산과 거래에 대한 인증으로 미국에서 HACCP을 시행한 이후 필리핀 업체들이 미국 수출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기 시작하였음
- 현지 버섯 제조업체에서는 사용 비중이 높은 인증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표 3.9 HACCP 인증 방법

인증명	HACCP	
발행기관	SGS Group	
성격	선택 인증	
취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생물학, 화학, 물리학적 위험요소 인지 - 각 위험요소에 따른 행동강령 - 위험요소 중점관리 기준 지정 - 위험요소 중점 한계점 지정(Ex. 최소 증해 온도) -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위 기준의 충족과 효율적으로 운영됨을 확인 - 모든 중점관리의 문서화와 관리 	

자료: SGS Group Philippine(www.isgs.ph)

3. 라벨링

라벨링 정보 개요

❖ 판매 중인 표고버섯 라벨링 예시

① 인기 제품
(말레이시아 산)

② 한국산



- ▶ 제품명
- ▶ 제조자
- ▶ 가격
- ▶ 중량
- ▶ 포장
- ▶ 원재료

자료: 현지조사원

❖ 필리핀 포장 식품 라벨 의무 표기사항(필리핀 행정명령 No. 2014-0030)

번호	항목
1	제품명/식품명
2	브랜드명 그리고/또는 트레이드마크
3	전체 원재료 목록
4	순중량 및 고형물 중량
5	제조자, 재포장자, 포장자, 수입업자, 무역업자, 유통업자, 이름 및 주소
6	Lot Identification
7	보관 조건
8	유통기한/소비기한(최종소비일 표기 권장)
9	식품알레르겐 정보
10	사용법/지침
11	영양 성분표/영양 정보/ 영양가

□ 라벨링 규정

- 필리핀에서 포장 식품의 라벨링은 필리핀 행정명령 No.2014-0030³⁶⁾을 따름
- 라벨링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표기하거나 병기도 가능하며, 수입 식품의 경우 외국어로 표기된 상표는 영어로 번역
- 최소한 다음과 같은 필수 정보를 포함

표 3.10 필리핀 포장 식품 라벨 의무 표기사항 상세

번호	항목	설명
1	제품명/식품명	제품명은 식품표준(Food Standard)에서 승인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제품명이 없는 경우 적절히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제품명을 사용
2	브랜드명 그리고/또는 트레이드마크	FDA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AO No. 2005-0016 “General Policies and Guidelines Governing Brand Names of Products for Registration with the Bureau of Food and Drug”에 저촉되지 않는 브랜드명을 사용
3	전체 원재료 목록	원재료 전체와 그 함량(함량 순으로/첨가제, 향료, 방부제 포함)
4	순중량 및 고형물 중량	국제단위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기준
5	제조사, 재포장자, 포장자, 수입업자, 무역업자, 유통업자 이름 및 주소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와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
6	Lot Identification	lot 번호는 양각으로 새기거나 직접 포장 또는 용기에 개별적으로 영구적으로 표시
7	보관 조건	실온 외 특별한 보관 조건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명시
8	유통기한/소비기한 (최종소비일 표기 권장)	일월연 순
9	식품알레르겐 정보	원재료 리스트 아래 명기
10	사용법/지침	식품의 올바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용 가능한 경우
11	영양 성분표/영양 정보/영양가	표 형태로 명기

36) 「Administrative Order No. 2014-0030 Revised Rules and Regulation Governing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Products Further Amending certain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Order NO. 88-B s. 1984 or the “Rules and Regulation Governing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Products Distributed in the Philippines,” and for other Purposes」, Department of Health(2014.9.8)

□ 라벨링 샘플 정보

❖ 라벨링 샘플 사진 ① - 인기 제품

					
제품명	Champ Fungi Shiitake Mushroom				
제조사	Champ Fungi Pte Ltd.				
가격	US\$ 2.45(127.20 필리핀 페소)				
중량	150g				
포장	플라스틱 용기				
원재료	표고버섯				
유통기간	(미기재)				
인증	(미기재)				
판매 확인 매장(방문일)	슈퍼마켓, SM San Lazaro, Tayuman, Manila, Philippines (2018.5.2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상점 전경</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제품 진열대</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able>		상점 전경	제품 진열대		
상점 전경	제품 진열대				
					
제품 특징	동 신선 표고버섯은 말레이시아에서 재배하여 싱가포르 회사에서 포장되며 필리핀으로 수출됨				

자료: 현지조사원

❖ 라벨링 샘플 사진 ② - 한국산



제품명	Fresh Shiitake	
제조사	Sae Min Corporation	
가격	US\$ 1.5(78.00 필리핀 페소)	
중량	94g	
포장	플라스틱 용기	
원재료	표고버섯	
유통기간	(미기재)	
인증	(미기재)	
판매 확인 매장(방문일)	슈퍼마켓, SM San Lazaro, Tayuman, Manila, Philippines (2018.5.23)	
	상점 전경	제품 진열대
		
제품 특징	한국산 표고버섯의 타깃 고객층은 중산계층임	

자료: 현지조사원

4. 위생요건

□ 식품첨가물 규제

- 필리핀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2017년 5월 23일 허가된 식품 첨가물의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정리하여 현지에서 제조 또는 수입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필리핀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사용 및 적용 기준을 규정하고자 ‘식품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에 관한 개정된 규제 지침’을 발표³⁷⁾
- 개정된 규제 지침에서 식품 첨가물의 최대 사용 레벨은 FDA commodity standards, Codex을 비롯한 기타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준들을 준수
 - 개정된 규제 지침에서는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권장하는 Specifications of Identity and Purity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개발한 적합한 규격을 따르도록 규정³⁸⁾
 - 안정성 면에서, 식품 첨가물을 GMP³⁹⁾에 따라 생산, 보관, 운송 및 취급을 통해 (개별 기준 만이 아닌) 전체 규격에 부합시킴으로써 식품 등급의 품질을 달성⁴⁰⁾

표 3.11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권장하는 Specifications of Identity and Purity에서 정한 식품 첨가물

제품	식품첨가물	기능	최대 허용량 (mg/kg)
04.2.1.1 가공되지 않은 신선 채소· 해조류·견과류· 씨앗류	빙초산 ACETIC ACID, GLACIAL	산도조절제, 방부제	GMP
	아스코르브산 ASCORBIC ACID, L-	산도조절제, 산화방지제, 밀가루 처리제, 금속조절제	500
	구연산 CITRIC ACID	산도조절제, 산화방지제, 색소유지제, 금속조절제	GMP
	젖산 LACTIC ACID, L-, D- and DL-	산도조절제	GMP
	구연산 이수소나트륨 SODIUM DIHYDROGEN CITRATE	산도조절제, 유화제, 유화염, 금속 조절제, 안정제	GMP
	구연산나트륨 TRISODIUM CITRATE	산도조절제, 유화제, 유화염, 금속조절제, 안정제	GMP

자료: 「Codex Alimentarius-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www.fao.org), 2017.

37) ‘Philippines-Revised Regulatory Guidelines Concerning Food Additives, and Processing Aids’, Indian Trade Portal (www.indiantradeportal.in), 2017.

이 개정된 규제 지침은 기존의 2006년 10월 18일자 Bureau Circular No. 2006-016 ‘식품 첨가물 업데이트 목록 (Updated List of Food Additives)’을 취소하고 대체함

38) ‘DRAFT FOR COMMENTS as of 23 May 2017’, World Trade Organization(members.wto.org), 2017.

39) GMP란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서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관리 기준임

40) 「Codex Alimentarius-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www.fao.org), 2017.

□ 잔류농약기준

- 표고버섯의 경우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규정한 잔류농약기준에서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일반 기준 및 기타 채소에 대한 기준을 적용 가능

표 3.12 표고버섯에 적용가능한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규정한 잔류농약기준

제품	잔류농약	채택연도	최대잔류허용기준 ⁴¹⁾ (mg/kg)
과일 및 채소	클로르덴 Chlordane	-	0.02
채소 (나열된 것을 제외하고)	아진포스메틸 Azinphos-Methyl	1995	0.5

41) Maximum Residue Limit, MRL

[참고 문헌]

■ 참고 자료

1. Country Insight Snapshot Philippines April 2018」, Dun & Bradstreet, 2018.4.13
2. 「Philippines: Retail Foods - 2017 Food Retail Sectoral Report」, USDA, 2017.12.6
3. CHANG, Hyun You et al. Status and Prospect of Mushroom Industry in the Philippines, JPAIR Multidisciplinary Research, 2014.3.
4. D.Corazon and M. Licayao, "Gathering practices and actual use of wild edible mushrooms among ethnic groups in the Cordilleras, Philippines", 「Diversity and change in food wellbeing, Cases from Southeast Asia and Nepal」, Wageningen Academic Publishers, 2018.4.6. p. 71-86
5. 「Philippines: FAIRS Country Report」, USDA, 2018.1.18
6. 「필리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2017.6
7. 「The Consumer Price Index in the Philippines(2006=100): 2017 Annual Report」,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18.5.9
8. 「Summary Inflation Report Consumer Price Index(2012=100): March 2018」,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18.4.5
9. 「2016 National Rice R&D Highlights-INTENSIFIED RICE-BASED AGRIBIO SYSTEM(IRBAS) PROGRAM」, Philippine Rice Research Institute, 2017
10. Administrative Order No. 2014-0030 「Revised Rules and Regulation Governing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Products Further Amending certain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Order NO. 88-B s. 1984 or the "Rules and Regulation Governing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Products Distributed in the Philippines," and for other Purposes」, Department of Health, 2014.9.8
11. 「Codex Alimentarius-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www.fao.org), 2017.
12. 「The Philippines: Consumer Market Opportunities」, HKTDC, 2017.7.19
13. 「DIGITAL IN 2018」, We are Social, Hootsuite, 2018.
14. 「Euromonitor Health in the Philippines」, Euromonitor International, November 2017.
15. 「Making Growth Work for the Poor: A Poverty Assessment for the Philippines」, The World Bank, 2018.1.1

■ 참고 사이트

1. Gabriel Cardinoza, 'Entrepreneur finds fortune in mushrooms', INQUIRER.NET(2015.3.8. 01:06 AM) (<http://business.inquirer.net>)
2. 'Alnus tree boosts Shiitake production', DOST-PCAARRD(<http://www.pcaarrd.dost.gov.ph>)
3. Chrise Dela Paz, 'Bangko Sentral ng Pilipina hikes interest rates for first time since 2014', RAPPLER, 2018.3.10. 6:16 PM(<https://www.rappler.com>)
4. Anne Camille B. Brion, 'Mushroom continue to 'sprout' in Central Luzon', Bureau of Agricultural Research(www.bar.gov.ph)
5. Diana Rose A. de Leon, 'Palayamanan Plus launced in Pampanga', BAR Chronicle(2015.3.) (www.bar.gov.ph)
6. 'Inauguration of DaCARS Mushroom Laboratory', Bureau of Agricultural Research(2017.11.28) (www.bar.gov.ph)
7. Catheryn M. Vilorente, 'Special Free Agri Seminar Held for Women', Agricultural Training

- Institute(2018..4.6 1:11 PM)(ati.da.gov.ph)
8. Jayvee P. Masilang, 'Mushroom Products Take Center Stage in Free Seminar', Agricultural Training Institute(2017.11.27. 8:12 AM)(ati.da.gov.ph)
 9. Sonny Pasiona, 'PhilRice, CLSU launch mushroom recipe book', Philippines Rice Research Institute(2017.3.10.)(www.philrice.gov.ph)
 10. 'Philippines-Distribution and Sales Channel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2017.11.7)(export.gov)
 11. 'Philippines-Revised Regulatory Guidelines Concerning Food Additives, and Processing Aids', Indian Trade Portal(www.indiantradeportal.in), 2017.
 12. 'DRAFT FOR COMMENTS as of 23 May 2017', World Trade Organization(members.wto.org), 2017.
 13. 「The Philippines: Consumer Market Opportunities」, HKTDC RESEARCH, 2017.7.19
 14.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
 15. 세계 HS 정보시스템(www.customs.go.kr)
 16.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17. 유엔식량농업기구(www.fao.org)
 18. 필리핀 쌀연구소(www.philrice.gov.ph)
 19. 농업연구소(www.bar.gov.ph)
 20. 필리핀 관세청(customs.gov.ph)
 21. 무역산업부(www.dti.gov.ph)

2018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No. 1804-01

품 목 : 표고버섯(Oak mushrooms)

국 가 : 필리핀(Philippines)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2018
발 행 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2-6300-1119 <http://www.kati.net>
자료문의 aT수출애로상담실
02-6300-1119

- 본 자료는 원본으로 본문 전체는 한국농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사이트 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